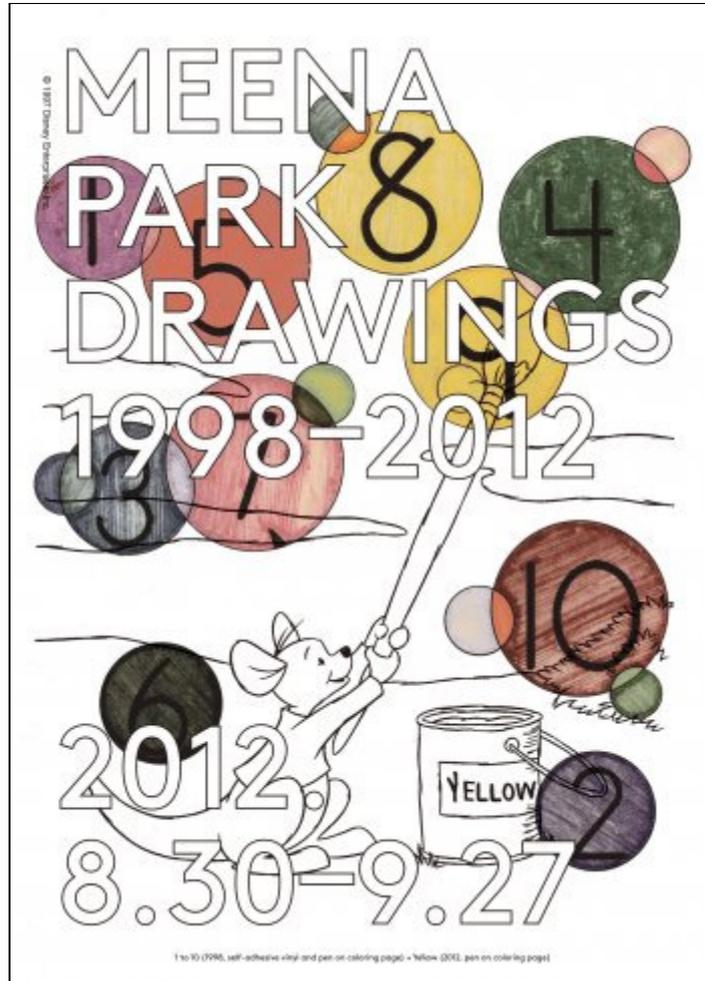


프린트하기

## 동심(童心)과 예술성이 만났다... 박미나 'Drawings'展

뉴스일자: 2012년08월24일 11시47분



어린이용 색칠 공부 책을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

박미나 작가의 <드로잉스(Drawings) 1998-2012>展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연지동 두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미나(39) 작가가 지난 15년간 작업한 785점의 드로잉 중 3백여 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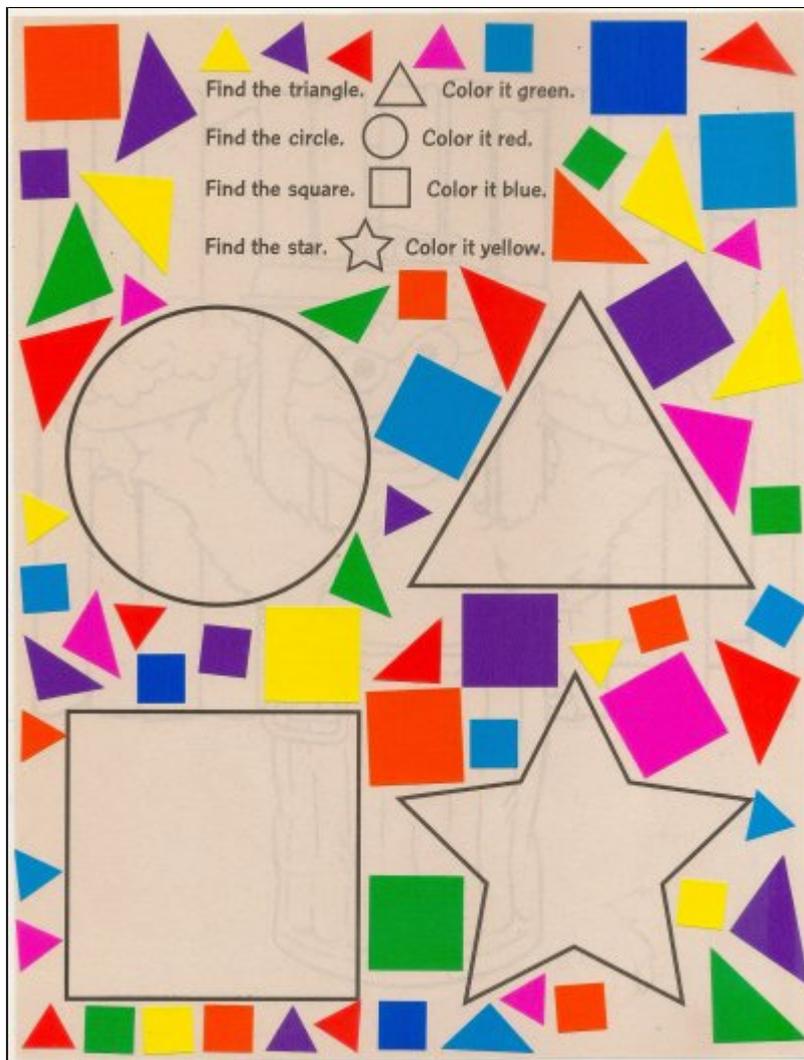
박미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어린이 대상 색칠 공부를 이용한 독특한 드로잉 연작을 전시한다. 그는 어린이용 색칠 공부 도안의 지시체계를 따르지 않고 드로잉을 겹쳐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이고 과장된 색깔로 채색하는 등 자신만의 회화로 변형시킨다.

평소 회화의 본질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박미나 작가는 '재현'이 아닌 새로운 읽기 방식으로 회화 영역을 확장한다. 색상을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를 통해 자신만의 색채 체계를 수립해 표현하는가하면 철자의 위치를 바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애너그램(anagram)', 컴퓨터 특수 이미지 문자 '딩벳'을 이용한 회화 등을 시도해왔다.

박미나 작가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 미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헌터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마쳤다. 두산갤러리 뉴욕, 갤러리 엠, 국제갤러리,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플라토, 아트스페이스 풀, 경기도미술관, 마루가메 이노쿠마 겐

이치로 현대미술관, 헤더 현대미술관, 아뜰리에 에르메스, 백남준 아트센터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유니온프레스=이혜원 기자]



박미나, Find the Star, 2012, sticker on coloring page, 33x25.5cm (사진=두산 갤러리)



박미나, Crayon, 1998, watercolor on coloring page, 33x25.5cm (사진=두산갤러리)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unionpress.co.kr/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창닫기